

롯데렌터카, 친환경·ESG 트렌드 선도하며 시장 이끌어

롯데렌터카는 전국의 영업망과 23만 대가 넘는 다양한 국내의 차량을 보유, 국내 1위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렌터카 브랜드이다. 롯데렌터카는 자동차를 빌릴 때, 살 때, 팔 때 등 다양한 차량 이용 목적에 따라 그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생활의 'Full Line Up'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모든 자동차생활을 해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No.1 롯데렌터카

롯데렌터카 가치경제 원년 선언, 친환경 트렌드 선도

롯데렌탈의 대한민국 No.1 렌터카 브랜드 롯데렌터카는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매년 국내 최대규모, 최다차종으로 친환경차 상품을 선보이며 국내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왔다. 실제로 2019년 전국 전기차 판매대수 중 약 8%가 롯데렌터카를 통해 판매됐으며, 2020년까지 전기차 장기렌터카 누적 계약대수는 8,200대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를 가치경제의 원년으로 삼은 롯데렌탈은 전기차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업계 친환경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지난 3월 롯데렌탈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업종별 릴레이 선언식에서 보유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캠페인에 동참을 선언했다. 또한 4월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전기차 기반 모빌리티 및 배터리 신규 서비스 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앞으로 다양한 전기차 특화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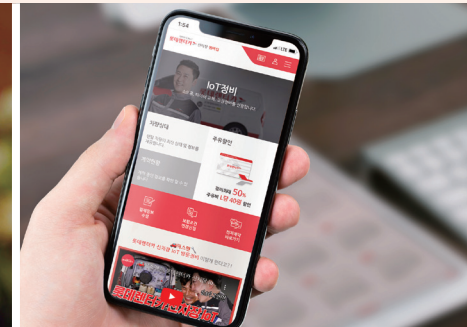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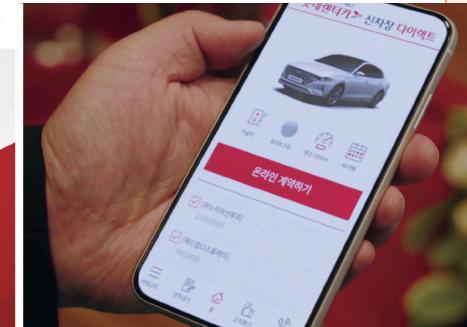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롯데렌탈은 GS칼텍스와 전기차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기차 충전제휴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 기여로 2017년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친환경 기부 드라이빙 등 전기차를 이용한 사회공헌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제11회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롯데렌터카, 개인사업자 전용 '실속 정비 패키지' 출시

지난 6월 롯데렌터카는 개인사업자를 겨냥해 '실속 정비 패키지'를 출시했다. 실속 정비 패키지는 고객의 주행거리에 맞춰 필요한 정비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신차 장기렌터카 상품으로 1만km부터 3만km까지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타이어 교환, 정기 방문정비 횟수를 고를 수 있어 경제적인 차량 관리가 가능하다.

별도의 신청 없이 알아서 찾아오는 정기정비는 연 1회 또는 2회 중 선택 가능하며, 계약 기간 내 타이어 교환도 미가입2분·4분 중 하나의 옵션을 고를 수 있다. 방문정비 시 전문가가 전반적인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엔진오일 세트(오일, 필터, 크리너)와 와이퍼, 워셔액 등 소모품을 교체해준다.

이외에도 갑작스러운 차량 사고를 대비해 4년 기준 14일의 대차 서비스와 변호사 선임·벌금 비용 등 최대 2천만 원의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특별 혜택도 포함되어 있다.



CEO INTERVIEW



롯데렌탈(주)
대표이사 사장

김현수

롯데렌탈의 대한민국 No.1 렌터카 브랜드 롯데렌터카가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위를 13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입니다. 롯데렌터카는 전국 영업망과 23만 대 이상의 다양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1위 규모의 대한민국 대표 렌터카 브랜드입니다. 롯데렌터카는 30년 이상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렌터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고객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창조하여 국내를 넘어 세계 렌터카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